

이 시대를 사는 남자가 정결과 동정을 지키려면?

♥ 이광호 베네딕도(생명문화연구가)
prolifecorpus@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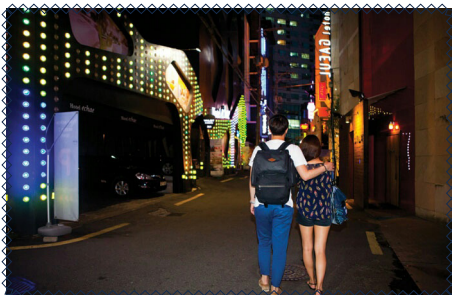
청소년이든 대학생 청년이든 이성교제를 시작하면 스킨십을 하고, 결국에는 성관계까지 가는 것이 일상적인 연애 코스처럼 되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지요. 연애를 시작하면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할 권리가 자동적으로 남자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많은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간혹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사는 남자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그런 남자를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얼마 전 나는 한 여학생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좋아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여학생에게 다가가지는 못했다. 일단 용기도 없었고, 또 돈이 없어서 연애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난 슬픈 짝사랑의 이야기이지만, 이때 나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내가 그 친구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관심을 가질 때, 한 친구가 나에게 물어봤다. “너 재량 자고 싶냐?”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친구의 대답은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야?”였다. 그 때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가?’라고 생각했다가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 주변의 많은 친구들은 섹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말을 했고, 연애를 하면서 섹스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 나와 내 주변의 몇몇 친구들을 오히려 비정상 취급을 했었다.

성에 대한 이런 논쟁이 발생할 때마다, 동정을 지키려는 나와 내 친구들은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고 사는 친구들과 심한 말다툼을 했었다. 그런데 동정을 지키려는 나와 내 친구들은 논리가 무척 부족했고 할 말이 별로 없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관계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좋다는데, 왜 정결과 동정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논쟁을 하다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하는 거지?’ 하면서 혼란에 빠져버렸고, 우리들도 흔들릴 뻔한 적이 많았다. 왓김에 ‘성관계를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을 정도였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지켰던 무례하고 뻔뻔한 대답은 “너네는 발정난 개니까 맘대로 성관계 해라. 우리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안 하겠다.”였고, 또 “너네들처럼 섹스 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너네들은 ‘미안!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에 모텔 가서 놀다보니까 너네가 생겨서 그냥 낳게 됐어.’라고 말해라”였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덧붙였던 말은 “아마 너네 임신되어도 애 낳기는 싫어서 낙태할 텐데, 수술할 때 너의 주체 못하는 성기도 함께 자르면

어떻겠니?”였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식하게라도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것 말고는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때는 나 자신조차도 성에는 남녀의 쾌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고 남녀의 인격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이것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나서야 알게 된 진실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수업을 다시 들으면서 한 번 더 절감하게 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가 알려주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사실이었다. 옛날 사막의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살고 있는 문화가 어떤 것이건 또 내가 문화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 왔건 지금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안다면, 그 바탕과 영향을 거슬러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말 공감되는 말이지만 어려운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함을 알기에, 무한히 넘어져도 무한히 일어나면서 문화를 역류해 나가야 한다는 결심을 한다.

이 대학생 형 오빠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확실히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남자가 정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기 위해서는 투쟁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학생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그리고 삶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잘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쾌락과 욕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토리노를 방문하셨을 때, 그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선하다는 걸 압니다. 아울러 제가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기 없고 쉽지 않은 말이지만 한 말씀 드려야 할 듯합니다. 교황도 때때로 진리를 말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써야 하니까요.

사랑은 상대를 매우 존중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거죠. 즉, 사랑은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정결과 순결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젊은이 여러분! 이 쾌락주의적이며 그저 향락과 개인적 안위 그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선동하는 이 세상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요즘의 사랑에 대한 쾌락주의와 가벼움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 말이 여러분들이 기대한 답이 아니라면 용서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사랑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